



가축개량기술정보

社団法人 韓國家畜人工授精師協會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내
 발행인: 안 장 호 전화: 02)587-0629
 02)586-9408
 편집인: 방 호 범 FAX: 02)586-9408

인사말씀



부회장 지용주

전국에 계시는 한국가축인공수정사 협회 회원님 여러분 정축년 한해도 어느덧 가을을 맞이하여 금년 한해도 회원님이 하시는 사업이 뜻대로 이루어지시며, 여러분 가정에 편안함이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엔 유난히도 폭염으로 인하여 회원님께서는 여러가지로 어려웠으며 더욱이 소값 하락으로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과 연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식탁의 주식인 벼농사가 농민들의 피땀으로 금년 농사가 대풍을 맞이하게 됨에 마음을 다소나마 풀수 있었던 것은 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축산업이 계속 고단하고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유과동, 우유속에 유해물질, 광우병, O-157형 등의 과잉 보도에 의한 소값 하락등이 계속 오래 지속되는 여파로 인해 회원님 하시는 사업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예측을 불허케 하는군요. 회원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이를 극복할수 있는 최선의 길은 양축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종축개량에 있어, 혈통, 외모, 능력, 인공수정의 장점, 단점을 비교 인식하게끔 하여 축산의 성공은 본인이 사육하는 가축의 생산능력을 향상 시키고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 해야 국제경쟁을 갖게 하는 것임을 우리회원님 모두는 최선의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

정부로부터 사단법인체로 인가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여러분의 협조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부터 우리협회 임직원들의 피땀흘린 노력의 결과로 볼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회원님들의 꾸준한 협조와 성원의 힘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되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회원님 여러분! 각도지회 산하 전회원님 제위께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98년 새해에는 우리 협회가 해야 할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나온 협회살림의 성과와 주위 여건의 변화를 거울삼아 2001년 축산물 완전 개방에 앞서 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협회가 보다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주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며 여러분 업무에 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어 한국가축인공수정사 협회가 정립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겠습니다.

회원님 얼마남지 않은 정축년도 보다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줄것을 거듭 부탁 드리며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승을 빌면서 뒤늦게나마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인식전환

중앙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정 영 채
본 협 회 고 문

1. 한국의 축산현황과 인식의 전환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축산은 여러차례의 가격파동 등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축산물의 소비증가와 정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팔목하리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대로 우리의 축산현실은 크게 달라졌다. 강자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이 바로 그것이며,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앞서간 선진국과 힘겨운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같이 우리의 축산이 역사적인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민식량생산산업으로 이 땅에 정착되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는 그 어느때 보다도 산·학·관·연의 하나가 되어 협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망설이면서 늦추려 하고, 피하며 우회하려는 것은 오히려 시간의 낭비요, 우리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과감히 실천하므로써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총생산에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치 면에서는 성장하고 있으며, 축산부분 또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축산물의 소비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선진국이 소비추세로 보아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 예견된다. 그러나 이제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내 산업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완전 개방과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결국 쇠고기는 2001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금년 7월, 유제품은 연유와 버터를 제외하고 이미 1995년부터 개방되어 값이 싼 외국산 축산물이 들어옴에 따라 경영상태가 영세한 양축농가는 이미 경영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 와서 소비자의 생활향상에 따라 양보다 질을 추구하고,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고, 국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오염방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양축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D 기피현상에 따라 열악한 근무지인 축산현장에 인력난과 시설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축산물의 개방에 따라 해외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

되어 광범위한 악성질병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축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는 등 축산경영의 여건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우리의 축산이 안정되고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하여는, 축종에 따라 한우와 젓소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고, 돼지와 닭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위생수준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설의 첨단화, 전업농의 육성, 축산단지 확대, 가축개량사업의 강화, 가공·유통구조의 개선, 전염병의 방역을 위한 검역기능의 강화와 축산물의 유해성 잔류물질의 오염방지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지원화를 위한 처리방안 또한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며, 축산학 교육과 연구도 생산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정부의 획일적이며 통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선진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축산여건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한국 축산과 가축인공수정사의 사명

이와 같은 우리의 축산현실에서, 그리고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가축 인공수정사가 담당해야 할 임무는 무엇

인가?

농사를 지어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는 좋은 씨앗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씨앗을 개량하고 번식시켜 나가는 주인공이다. 이 씨앗을 개량하고 번식시키는 우리는 개량번식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선진화되고, 국제경쟁에서 앞서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지식과 기술은 우리 축산분야 그 어느 학문영역보다도, 심도 있는 첨단과학기술이며, 그 변화 발전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개방되어야 하며, 내가 일하는 터전도 개방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적 안일한 생각으로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 왔는지도 모른다. 나를 중심으로 나의 처지에 적용시켜 생각하고, 미래를 오늘의 연장으로 생각하여 살아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같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미래에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나 하나만의 힘으로는 나도, 우리도 발전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미래의 가축 개량의 임무도 수행할 수가 없다.

정액과 수정란의 질을 높이고, 인공수정기술과 수정란이식기술의 질을 높여 세계적인 우량가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크고 강해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3. 약자는 뭉쳐야 산다.

역사적으로 모든 이익은 강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동물의 세계도 그러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자처하며 과학문명의 이기속에서 영원히 평화 공존할 것 처럼 구호와 사랑을 외치고,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는 인간의 세계 또한 더욱 그러하다.

오늘 1000일도 채 남지 못한 저 21세기의 문턱 너머에는, 오늘의 고통과 시련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풍요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50억 인구는 모두가 하나같이 희망에 부풀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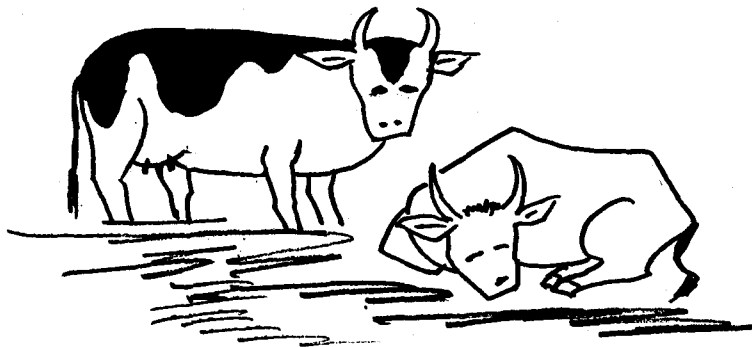
그러나 2001년 정월 초하루의 태양도 오늘의 태양과 다름없이 동쪽하늘에서 솟아 올라 서쪽하늘에 지고 말 것이며, 지구상에서의 분쟁 또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적이나 우방이나 힘으로 결정되고, 세계화 지방화도 강자에게 이익이 될뿐이다. 오늘의 우리는 약하

다.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살아왔고 분명한 것은 이나라 장래를 위해 소리없이 주어진 가축의 개량업무를 수행해 왔다.

21세기는 준비한 자만을 반기고, 희망차게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은 마침 쇠고기가 완전개방되므로써 모든 축산물의 개방이 완료되는 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희망찬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흐터지면 죽는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명언에 새삼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적은 이익을 위하여 앞서 가려는, 소아적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희생없이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끊임 없는 새로운 창조와 도전으로만이 나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나갈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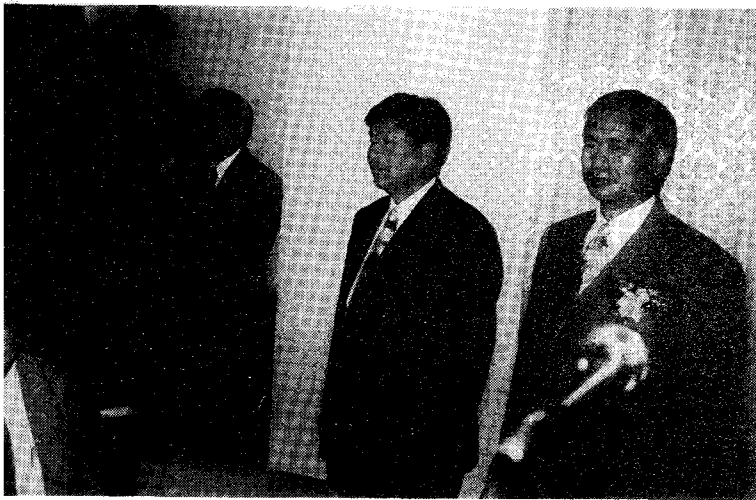
오늘 우리는 희생과 인내의 굳은 의지로 준비해야만이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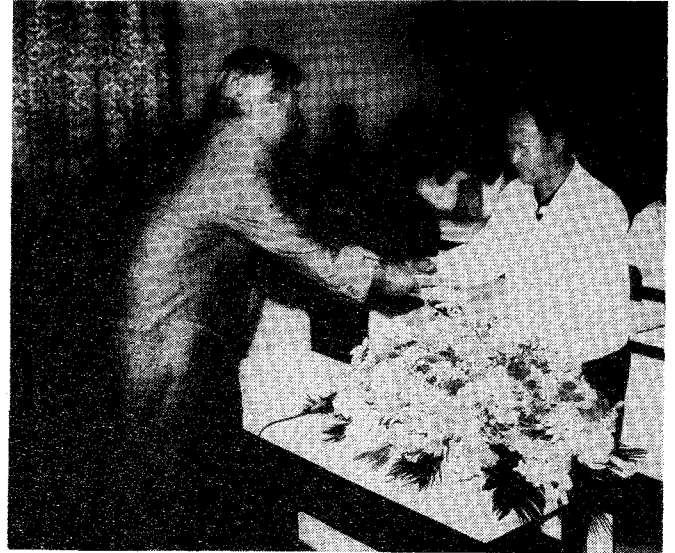
협회 활동 상황

- 1. 8 축산관련 단체장 및 학회장 신년 교례회 (축협중앙회)
- 1. 17 '96년 하반기 감사 및 '97년 1/4분기 이사회
- 1. 23 축산관련 단체장 간담회 (축산신문 주최)
- 1. 28 '97가축개량 기관 협의 (성현)
- 2. 10 선거관련 공고
- 2. 25 본협회 정기총회 개최

- 5. 27 '97 보수교육 제2기 실시 (경북 안동)
- 5. 29-30 중부지역 3·4기 보수교육 실시 (축산회관)



- 2. 27 '97수정란이식교육 협의회 참석 (성현)
- 3. 7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방문 (서산)
- 3. 12 농림부, 축산기술연구소 방문 (수원, 성현)
- 4. 8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와 '97수정란이식 관련 협의
- 4. 15 농림부와 축협중앙회 방문 협의 (회장)
- 4. 16 '97상반기 보수교육 대상자 통지서 발송
- 5. 1 전라남도자체 수정사보수교육 참석 (전남 나주)
- 5. 16 '97 보수교육 제1기 실시 (전남 나주)



- 6. 13 '98년 축발기금 심의 및 '97년 상반기 보수교육결과 중간 보고 (농림부)
- 6. 16 강원도 축산기술 연구센터 강의 (춘천)
- 6. 19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업무협의 (성현)
- 6. 27 농림부 축산정책 업무 협의
- 7. 1 한우고기 소비촉진 발대식 참석 (축협중앙회)
- 7. 3 이용빈, 정영채, 본협회 고문 모시고 협회 발전을 위한 협의
- 7. 4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와 (농림부정책위원) 협의
- 7. 10 '97상반기 감사 및 3/4분기 이사회
- 7. 15 축발기금에 의한 보수교육 기자재 피검
- 7. 25 경남 지부장 및 임원회 참석 (밀양)
- 7. 25 충북 임원 지부장 회의 참석
- 7. 30 경기북부지회 하계 수련대회 참석 (경기 의정부)
- 7. 31 남부 4개지역 담당 이관맹 대리 사표
- 8. 13 강원도 지회 하계 수련대회 참석 (강릉)
- 8. 19 한국 토종가축 연구회 총회 참석
- 9. 8 하반기 보수교육 대상자 통지서 발송
- 9. 25-26 홀스타인 품평회 및 경매행사 참관 (안성)



'97 상반기 보수교육 참석 현황

구분 도별	'97상반기 대상자	수료자		계	불참자				계	비고
		자진참석	대상자		연기원	반송	무단	도중하차		
경기도	51	4	23	27	1	4	23	-	28	
강원도	25	3	18	21	-	-	7	-	7	
충청남도	53	8	31	39	1	2	19	-	22	
충청북도	30	5	24	29	-	-	6	-	6	
전라남도	50	7	35	42	4	1	10	-	15	
전라북도	16	-	9	9	1	-	6	-	7	
경상남도	63	3	16	19	8	1	38	-	47	
경상북도	73	39	43	82	-	4	22	11	37	
제주도	-	-	-	-	-	-	-	-	-	
축협	29	1	26	27	-	-	2	1	3	
계	390	70	225	295 (76%)	15	12	133	12	172	

* 실시기간 : '97. 5. 16 ~ 5. 30

* 실시장소 : • 전라남도 나주시 전남 농촌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제3별관 • 서울 축산회관

* 하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회원님들의 활동사항

- 이 기 우 강원도 양양군 양양축산업 협동조합장
- 임 권 석 전라남도 현산 농업협동조합장
- 지 용 주 (본협회 부회장=충북청주시) : 충청북도 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출제 위원으로 위촉
- 김 의 성 (본협회 이사=전남 무안군) : 전라남도 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출제 위원으로 위촉
- 이 성 우 (본협회 사업부장) : 10월 2일 부터 12일까지 미국 홀스타인 품평회 참관 귀국

협회에서 당부드리는 공문

제 목 : 소수금관리 전산화 사업지침 보완 및 미등록우 전산화 추진

- 1) 축통 51551-334 ('97. 8. 12)호의 전달임.
- 2) 소수금관리 전산화 사업 지침에 의거 수정사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또한 정부 정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크게 평가를 받고 있으며
- 3) 앞으로도 우리 수정사들이 솔선해서 본 사업을 착실하게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지원 하에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며
- 4) '97. 9월말까지 전두수 바코드 장착이 완료될수 있도록('95. '96년 미정착분 포함) 별첨 과 같이 농림부로 부터 각 시·도청에 지침이 시달되었다하니 각 도지회장님께서 지역내 수정사 들에게 긴급 주지시켜 행여나 수정사들이 비 협조적이라는 물의를 빚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당

가축인공수정사 회관 건립 계획

1. 취 지

가. 축산업이 농가 부업적 위치에서 전업 내지 기업적 형태로 점차 독립된 산업으로 변천되어가고 더욱이 UR, WTO등 국제적 개방에 대처하여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간에 선진국과 힘겨운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는 가축의 개체별 개량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로서 우리 수정사의 임무가 그 어느때보다 막중함에 따라 대내외적, 면모 쇠신은 물론 업무량 증가에 따른 명실 상부한 수정사들의 전당이 될수있는 "가축 인공수정사회관"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나. 앞으로 개방화 시대를 맞아 수정사의 협동조직을 강화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는 상부상조할수 있는 협회의 육성이 필수적이며 이에 수반하여 우리의 오랜숙원인 회관건립이 무엇보다 조기에 성취되어야 할것임.

2. 현 황

가. 현재여건 (사무실)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내 일부 임대

규 모 : 10평 미만

소 유 : 한국 종축개량협회

사용료 : 월 30만원

나. 활용상황

- ① 책상 2개 배치할 정도로 극히 협소하여 서류 보관함이나 집기등 기자재를 보관할 공간이 전무 하며
- ② 회원 및 내방객을 영접 할 공간이 없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3. 사 유

가. 서류보관함이나 각종 집기류 및 기자재를 관리 할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

태이고

나. 협회의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현재의 장소로는 협소하여 직원 증원이나 신규 사업증대를 도모할수 없고

다. 각종회의나, 회원 양축가의 정보교환과 기술지도에 따른 내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빈을 접대할 장소마저 없음.

라. 수정사들은 가축개량이나 수정기술 상담등 수시로 정보교환, 외국과의 기술교류, 회의등 모임과 교육등이 빈번하여 지므로 독자적인 장소와 시설이 필요함.

마.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어가는 시대적 행보에 맞추어 앞으로 수정업무의 전산화에 대비 하여 독자적인 장소시설이 당연히 필요하므로 국내 유일한 가축인공수정사 회관을 건립하여 면모쇄신을 기하여야 하겠음.

4. 경과일지

- '95. 3/4분기 이사회 ('95. 7. 14)때 처음으로 모금조성 발의
- '95. 4/4분기 이사회 ('95. 12. 8)때 전문 7조로 된 특별기금관리규정안이 의결 통과됨.
- '96. 2. 29 '96총회시 상정되어 참석 전원 찬동으로 의결 통과

이렇게 우리 회원들의 열과 정성 그리고 한데 뭉친 단합된 조직으로서의 발전을 염원하는 뜨거운 열기로 자진 참여 하여 주신 회원님들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필코 우리의 숙원인 수정사회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모금된 기금은 회원별 명단을 첨부하여 빠른 시일내에 본부협회로 송금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관건립통장 가입자 : (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 협회

한일은행 : 372-014240-13-007

회 장 안 장 호

회관건립기금 입금현황

= 충북도지회 =

성명	주소	금액
안장호 회장		1,000,000
이재우 전임회장		800,000
지용주 부회장		300,000
원종태	제천시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 109동 502	
이규승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478-5	
김은수	괴산군 증평읍 교동 21-2	
지재학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68-10 보성빌라 405	
김달희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49-12	
황광규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1구 544-1	
박홍규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민정기	옥천군 이원면 윤정리 253-6	
계		5,100,000

= 충남도지회 =

충남 천안 지부장 강태양 외 15명 계 4,800,000

= 경기도 북부지회 =

성명	주소	금액
이상익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608-7	150,000
김향철	의정부시 호원동 한신APT 1차 2동 101호	150,000
안중길	의정부2동 560-6 홍익빌라 5차 301호	150,000
박기왕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84	150,000

성명	주소	금액
안상원	동두천시 생연동 725-15 동방맨션5동 102	150,000
송성철	동두천시 생연동 85 기상APT 101-410	150,000
김홍식	경기도 양주군 남면 신산리 285-80	150,000
조성경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286-29	150,000
고영선	경기도 양주군 남면 신산리 282-6	150,000
이성호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남리 728-4	150,000
윤종현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남리 738-6	150,000
송한수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가업2리 436-1	150,000
홍진기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6번지	150,000
홍규태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803번지	150,000
이상만	포천읍 신읍리 210-19	150,000
노병섭	소흘읍 송우리 220-1	150,000
김장종	포천읍 신읍리 58-5	150,000
이양효	포천읍 신읍리 191-18	150,000
안정호	관인면 탄동 1리 6반	150,000
김호정	일동면 기산3리 83-147	150,000
김종필	영북면 운천리 333-1	150,000
김성환	영중면 양문리 809	150,000
황선봉	경기도 파주시 금촌읍 금촌리 송은B/D	300,000
한규영	문산읍 문산4리 한진APT 2-704	300,000
윤화용	파평면 금파리 300	300,000
최중락	적성면 구읍리 634	300,000
최철섭	적성면 구읍리 중앙B 301호	300,000
홍경로	법원읍 법원리 683-6	300,000
양재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1리 17반	150,000
김광률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54-1	300,000
이근원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일성APT 나동 406호	300,000
구주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21 101동 1호	300,000
우종필	남양주시 진건면 배양2리 668번지	300,000
계		6,450,000

= 전라남도지회 =

성명	주소	납부금액	본부협회로 송금된 금액
류해룡	광주	1,000,000	300,000
정종현	광주	600,000	300,000
김형수	강진	600,000	300,000
임순상	강진	600,000	300,000
정현진	강진	600,000	300,000
지국환	강진	600,000	300,000
이광식	강진	600,000	300,000
조병락	강진	600,000	300,000
손총환	강진	600,000	300,000
차태원	강진	600,000	300,000
신동화	강진	600,000	300,000
박종열	강진	600,000	300,000
김해수	함평	600,000	300,000
장길용	광양	600,000	300,000
김경모	광양	600,000	300,000
서병근	광양	600,000	300,000
이해범	나주	600,000	300,000
신권희	나주	600,000	300,000
김점중	장흥	600,000	300,000
안금수	장흥	600,000	300,000
이태성	장흥	600,000	300,000
이광섭	장흥	600,000	300,000
이상인	장흥	600,000	300,000
안상섭	장흥	600,000	300,000
고재국	장흥	600,000	300,000
오형주	장흥	600,000	300,000
김준용	장흥	600,000	300,000
문택희	장흥	600,000	300,000
김석포	장흥	600,000	300,000

성명	주소	납부금액	본부협회로 송금된 금액
박만웅	장흥	600,000	300,000
김대원	해남	600,000	300,000
이금연	해남	600,000	300,000
배천봉	해남	600,000	300,000
양재석	해남	600,000	300,000
허연	나주	600,000	300,000
정병원	함평	600,000	300,000
정해성	나주	600,000	300,000
김의성	무안	600,000	300,000
최용주	무안	600,000	300,000
오종록	무안	600,000	300,000
김동선	무안	600,000	300,000
김중현	무안	600,000	300,000
정성욱	무안	600,000	300,000
최낙진	순천	600,000	300,000
김원배	순천	600,000	300,000
박종건	순천	600,000	300,000
이은성	순천	600,000	300,000
김종철	순천	600,000	300,000
한규하	순천	600,000	300,000
김형호	순천	600,000	300,000
김석주	순천	600,000	300,000
정한수	나주	600,000	300,000
정금제	영암	100,000	비회원
박도상	장성	100,000	비회원
장성축협	장성	100,000	비회원
정기수	광주	200,000	비회원
계		32,100,000	
기금총계			48,450,000

부 스티 뉴 스

BOOSTIN NEWS

-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소 산유능력 증강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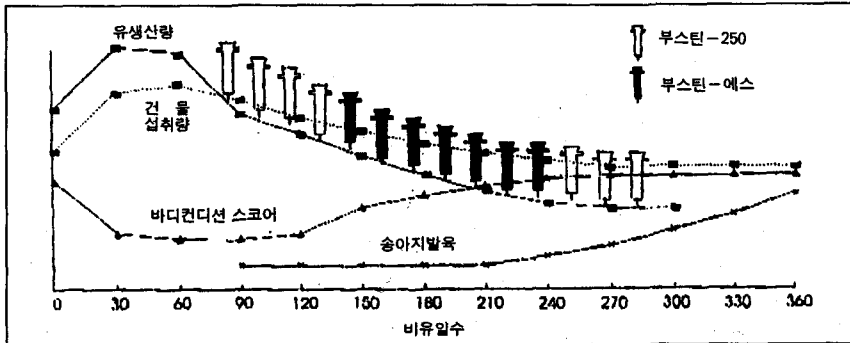
젖소 산유촉진 단백질의 국내 적용사례 및 개선방안

그동안 부스틴 사용시 의문시 되었던 사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 1) 젖소의 체력과 영양이 빠르게 소진되어 소의 경제수명이 감소될 가능성
 - ① BCS 3.0이상의 젖소에 부여할 것
 - ② 유량이 35kg/1일 이상이거나 유방염, 부제병 등을 동반하는 20kg/1일 미만의 소는 제외
 - ③ 보호지방, 미분해단백질, TMR, 열처리전지대두, 면실 급여 바람직
- 2) 유산, 수태율 저하 등 번식문제의 가능성
 - ① 번식에는 비유초기 에너지 균형이 큰 영향을 미침
 - ② 에너지 균형의 (+)상태 유지와 적정 사양관리의 뒷받침이 필요
 - ③ 부스틴-250과 부스틴-에스의 적절한 혼합 사용 바람직

- 3) 유량증가에 따른 유방염 등 질병 발생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 ① 부스틴에 의한 젖소의 고능력화를 감안,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
 - ② 분만전후, 대사성 질병의 예방을 위해 건유 직전의 BCS를 3.5정도로 유지
 - ③ 분만 15일 전후 셀레니움과 비타민 D3를 주사
 - ④ 건유기는 유방염 치료 및 예방의 적기
- 4) 유지방 등 유질의 변화에 대한 의문
 - ① 유성분은 주로 사료성분의 조성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정상적인 사료 급여하에서는 부스틴 투여에 의한 유성분 변화 없음
 - ② 농후 사료 과다에 의한 1위 기능저하 및 유지방 저하를 막기위해서 증조 및 이마편 유효

- ③ 유방염에 걸린 젖소는 투여 중지
- ④ 무리한 끝젖 착유는 피하는 것이 좋음



〈젖소 생리에 맞는 부스틴적용 프로그램〉

- 5) 여름철 더위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① 초산 생령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체온상승 억제효과를 가지는 농후사료의 양을 늘려줌
 - ② 1위 발효기능 유지를 위해 건물기준 약 1.2%의 증조를 공급



社 團 韓 國 家 畜 人 工 授 精 師 協 會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호
 축산회관빌딩 201호
 TEL: 586-9408, 587-0629
 FAX: 586-9408
 137-073

□□□-□□□□